

國立公園과 自然保護

- 國立公園管理公團의 發足에 期待하며 -



金 樟 洙

國立公園의 發達은 自然保護思想에 기인한 것으로 18世紀 後半부터 歐羅巴를 中心으로 發生하였으며 産業革命以後 天然資源의 開發과 더불어 自然이 急速히 損傷되는데에 연유한 것이다.

1913年 瑞西에서 시작된 自然保護運動은 第1次大戰以後 歐羅巴의 여러 나라에서 國際的 組織의 結成을 가져왔으며 第2次大戰後에는 國際聯合本部의 유네스코와 瑞西의 自然保護聯盟의 後援下에 31個國의 代表者가 모여서 I·U·C·N(國際自然保存聯盟)이 設立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6年에 한국자연보존협회가 I·U·C·N.에 加入하였으며 한국국립공원협회는 1972年에 加入하였다.

世界最初의 國立公園은 1872年에 創設된 美「엘로스톤」國立公園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1967年에 智異山이 처음으로 國立公園으로 指定된후 現在 17個所의 國立公園이 있다. 우리나라의 國立公園은 國際的으로 最小限 100km²以上의 面積을 가진 自然地域이어야 한다는 初期의 慣例에서 볼 때 鷓龍山(60.98km²). 內藏山(76km²). 伽倻山(57.81km²). 北漢山(78.45km²) 등은 지나치게 좁은 面積이며 自然公園으로서의 國立公園은 500km²以上이어야 바람직하다는 새로운 傾向에 비추어 보면 모든 國立公園이 面積上으로는 不足하며 地域的 分布를 감안하여 全國的으로 均衡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國立公園에 대한 國民의 關心度를 높이기 위하여 韓國國立公園協會는 많은 活動을 하였다. 本協會는 I·U·C·N. 國立公園委員會의 一員으로서 우리나라 國立公園의 對外弘報와 國內國立公園愛護者의 擴大, 管理要員 教育·弘報 및 學術調查研究를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높은 經濟成長, 餘暇의 增大, 交通手段의 發達등으로 全國土의 3.3%를 차지하는 國立公園의 探訪은 激增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國家를 代表할 수 있는 自然景觀地가 自然保護, 生態系保全이 파괴될 可能性도 있을 수 있다.

建設部는 利用與件變化에 따른 資源管理 및 保護를 市·道·郡에 委任管理케한 결과, 管理의 多元化 行政業務重複, 責任轉嫁, 收支財政에 따른 差等管理現象 入場料 二重徵收등 矛盾이 있으므로 이를 修正하여 國家直接業務擔當으로 바꾸어 管理公團을 設立하기로 確定하였다. 公園管理公務員의 現業執行이 限界에 이르고 있음으로 清掃, 施設物管理등 現業的 業務擔當制로 바꾸어 管理刷新하기로 하여 明年부터 施行하게 되었다. 이는 國立公園이 가지고 있는 自然性, 神秘性을 유지하여 自然保護思想에 입각한 本然의 姿勢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自然保護의 뜻에는 自然淨化 自然保存 環境保全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自然保護에 대한 實際的 對應策은 어려운 일이다. 萬若 人間의 造形이 모두 反自然的 行爲로서 否定되면 人類의 文化는 進陞되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날 이것을 禁止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不當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대로 放置하면 開發行爲가 急히 進行하고 大規模로 되어 後代에 禍根을 주는 것도 自명한 일이다. 하여간 自然保護에서 첫째 自然淨化는 基本的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고 推進하기 어려운 分野이다. 登山한 사람이 가지고 간것을 汚物로서 버릴것이 아니라 스스로 집까지 가지고 가는 運動으로 이끌어 가야 하나 아직도 未洽한 점이 많으며 이 운동은 國民的 弘報啓蒙과 教育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둘째로 自然保存은 公園區域內 自然保存地區에서 실시한다. 學術研究와 自然保護上 必要한 行爲는 許容되고 있으며 自然資源에 대한 實施調查·研究를 하며 이에 대한 對備策을 講究하고 開發利用과 保存의 均衡이 깨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保存의 立場에서 이를 積極的으로 막아야 한다. 특히 國立公園에는 特異한 景觀 溪谷 山岳 瀑布 史蹟 天然記念物이 많으므로 이를 積極적으로 保護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環境保全은 새로운 倫理와 秩序를 모색하는 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오늘날 環境이 생태학 적위기에 達쳐왔음을 인식하여 人間이 어디까지나 人間으로 살아나가기 위하여서는 각종 汚染을 방지하여 快適한 環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세가지 뜻을 가진 自然保護思想을 國立公園에 反映시키기 위한 實體로서의 管理公團의 業務는 실로 重大하다고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天惠物인 國立公園을 子孫萬代에 그대로 계승하기 위한 契機가 될것을 確信하고 公團의 合理的 運營에 크게 期待한다.

(筆者: 農博·高大名譽教授·韓國林政研究會長·國立公園委員·國立公園協會理事)